

제25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7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
2.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3.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4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전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2건으로 금일 회의에서는 1건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안으로써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안전 제출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299호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소방취약계층을 명시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한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나, 안 제4조에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혹시 붙임으로 돼 있는 것은 오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와 규제심사 사전검토도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299호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화기 1개가 한 2만 5천 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한 1만 5천 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저희 관내는 한 2만 4천세대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어르신들 지금 보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분들, 수급자 분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쓰는데 소화기가 저도 한번 작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 비치되어 있는 이 소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2.5kg 분말형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2.5kg 분말형?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이것보다 조금 더 작동하기 편리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개는 화염이 발생한 곳에 던지면…….

○김꽃임 위원 터지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진압되는 형이 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무기형으로 해서 스프레이식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함에 있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또 노인 분들이 힘이 미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고 9월 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할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소방서와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저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작동이나 이런 것이 불편해요. 저도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

도록 소방서와 의견을 나누셔서 소화기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방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전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301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자연휴양,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조성한 것으로 제1위탁시설 한의원, 요양동, 부대시설 등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6조의2항에 의해서 지난 7월 4일 민간위탁 갱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자연치유와 관련된 심신 휴양 등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전체 부지 7612㎡입니다. 연면적 1691㎡ 512평 정도 됩니다. 위탁시설은 제1위탁시설로 전체면적의 47% 정도 해당됩니다. 한의원 1동, 요양동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점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해서 한의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 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적격평가 시 재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부적격 평가 시에는 재입찰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고, 수탁료는 원가분석에 따라 산정된 위탁료가 부과됩니다.

운영경비는 시설 운영비용 수탁자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수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에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시설관리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한방의료건강프로그램 전문화된 특화 운영을 위해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제고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01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

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
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올 해 초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
중 변경되었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
시고 보고된 사업은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
다.

지역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
역개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
니다.

박종철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유현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호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역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5쪽,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진도 75%까지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계
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도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
역입니다.

도시계획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수립해
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과 전략
환경영향을 평가·협의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도
시기본계획에 환경보전관리계획을 검토해서 2018년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3단계 사업과 2016년 2단계 사업 2개소,
2017년 1단계 사업 3개소 총 6개 마을 사업에 대해
서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쪽 4번, 세외수입채납금 징수 및 환지증명 받
급입니다.

세외수입채납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 쪽 5번,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입니다.

현재 공정률 60.8%이며, 2017년 계획공정률 80.2%
가 달성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력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노반, 궤도, 전력, 신호, 설비, 건
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
역 추진입니다.

2019년 5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하반기에는 기
본계획안 수립과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번, 태백선 폐선로부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완료 후에 장락
역 주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리솜리조트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법정관리 중이며 회생계획 인가 후 잔여사업

인 호텔 250실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 입력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도 계속 하겠습니다.

1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번, 개발행위 허가 업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번,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 업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운영 건으로 산통부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2016년 6월 10일 제정 돼서 2016년 9월 23일 개정안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이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현행대로 지속 유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들하고 민원사항들이 발생되면 과장님께 다 보고가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이번 장마에도 그렇지만 지난 봄에도 비가 조금만 와도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토사유출이나 아니면 보강토를 쌓은 곳이 무너지거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에게 부탁을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 보강토를 높이 쌓는 부분들을, 물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좀 자체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지침에다 넣어서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올 때에 토사 흘러내려서 도로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허가자들에게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침에 좀 넣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전달 받으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기준이나 건축 석축 관련된 것은 기준이 있고요.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인허가는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 사항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벽면 사면보호에 잔디로 돼 있다고 하면 어떤 블록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권고하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기 때

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산을 파헤쳐서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이 상당수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토사가 결국에는 농경지의 배수로로 다, 그렇죠? 막아버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호소를 많이 해요. 그다음 또 도로로 흘러내려서, 지금 가보면 명암 쪽도 마찬가지로 시골로 가면 거의 도로에 토사가 다 쏟아져 내려와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좀 우리 담당 주무관들께서 강력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토사 흘러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검토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조율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세심한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태백선 폐선로부지 토지매입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이 구간은 계획한 것은 제천역에서 장락역까지 다 계획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천 시내에서는 저희들에게, 저희 지역구가 신백동하고 장락동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폐선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분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공공용으로 쓰지 않을 부지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 공공용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봐야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철도를 이설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동부권 개발이 철도로 인해 제한이 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이 일반이라

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철도로 인해서 도시와 단절되는 것을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이설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철도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 분들이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철도공단에서 일반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빠른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내구간이라도 제가 봤을 때 제천역에서 장락까지만이라도 거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예,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년 20억 원씩 매입비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근데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빨리 추진해야 해요. 이것을.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토지주에서 분양까지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으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다만 이제…….

○김호경 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사서 분양을 할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분양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시에서 저희들이 이걸로 수익을 내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동시에 하면요, 분양까지. 그렇게 함께 추진을 해주시고요.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

○김호경 위원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돼서 저희들 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우리 박달재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고, 거기에 리솜리조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부설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해줬는데, 지금 호텔동이

굉장히 공사 공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거기다가 지금 부도설까지 있어서 작년부터인가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정관리에서 회생 개시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개시 결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 9월까지 제출기한인데 아직 제출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호텔동 250실은 팔주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는 다 돼 있는 것으로.

○김호경 위원 추진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농협 쪽에 지금.

○김호경 위원 농협 쪽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쪽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농협 쪽에서 인수를 다 받은 것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농협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그럼 호텔동 짓는 것도 농협계열사로 편입됐다는데 농협계열사에서 돈을 들여 호텔동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재원 대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농협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준공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확신이 가는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사실은 작년 말에 건축허가 변경을 내니, 뭐니 이런 말까지 오가다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시에서 행정적인 것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행정으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자금이나 그런 것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에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한 4%대인데,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린다는 정책 이에요. 아직 세부계획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도 정책기조가 태양광 시설을 확대하고 충북을 태양광클러스터의 선두 이렇게 해서 그 계획으로 하반기 계획도 잡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천시 지금 주변경관 훼손과 또 여러 가지 주민 분들과고의 마찰 이래서 입지를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이제 처음 태양광 들어오기 시작한 쪽이 전라도 쪽인데 그쪽에도 이제 후발에 가서 제한을 하기 시작했구요. 너무 민원이 많고 경관이 훼손되다보니까. 충북에서는 우리 시가 한 두 번째 정도 이 지침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거리가 몇 미터 기준인 거죠,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우리 시 규정은 지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개설된 면도와 리도로부터 500m가 떨어져야 하고요. 또 충주호수 주변에서부터 500m가 떨어져야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500m를 지금 기준으로 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리고 이제 자연취약지구나 10% 이상 주거밀집 마을로부터는 200m가 떨어져야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200m 떨어진다고 해도 민원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작년도에 태양광시설 하겠다고 제천시에만 허가 낸 것이 몇 건 정도 되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 시에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도로 혹시 허가 신청한 것에서 허가나거나 뭐 이런 것 혹시 통계가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 도 전체 타 시군 우리 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우리 시요, 우리 시. 도에 신청하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이상이면 도로 가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발전사업 허가는 경제과 주관이 되어서 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개발행위는 3만㎡ 이상이면 도까지 가야 하는데 그 이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건 정도는 개발행위 허가가 한 10만㎡요? 그럼 한 3만평?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3만㎡ 미만.

○김꽃임 위원 3만㎡ 미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새 정부가 한 5년을 간다는 얘기죠. 5년이고 정책기조도 많이 바뀌고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도 이쪽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확대는 하되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 안 되고, 또는 주민들과고 마찰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잖아요. 이 시설이 어디에 들어서느냐, 개인이 할 것이냐 또 관에서 할 것이냐. 앞으로 저는 이 정책 때문에라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태양광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쪽으로 세부계획은 없지만 내년에는 뭔가 좀 뚜렷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지역개발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다른 시군 말고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하반기에 해주셨으면 해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정부 지침이 우리 지역에 산지가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관 좋고 수림이 양호한 수백 년 돼온 산림을 깎아내면서까지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뜻 이해는 충분히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산림 쪽 말고요. 산림은 자연경관 훼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수자원공사 쪽에서 저수지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수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좀 제가 이쪽으로 개발행위이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참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온영수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유달현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진태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시장에 화재예방 시설보수와 역전시장 바닥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중앙시장 LED 전등 교체 공사와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실수요검증통과기준에 적합하도록 물류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제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하반기에는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이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추진 등 센터기능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를 확대해나가는 데 주력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58개 사회적 경제조직과 신규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기업 등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여섯 번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4개지구 사업에 발주 단계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해서 11월 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제천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새 정부 시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일자리정책에 심의, 평가,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 여덟 번째,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일자리나 기존 일자리 늘리기 등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일자리창출 시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양성 교육과 설립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현재 사회적기업 12명, 마을기업 3명이 선발되어서 8월까지 2개월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2년차 사업으로 ICT, 디자인, 자생력 강화, 기반설비, 이벤트행사 등 쇼핑과 관광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 중앙시장 1층에 9개 점포, 2층에 4개 점포가 입주해 있으며 연말까지는 25개 점포 계획대로 모두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청춘맛길을 개장했으며, 8월 달 중에 청년몰 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3년차인 본 사업은 전체 11억 5천만 원 중 금년도에 2억 7천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선별·공동지원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 열여섯 번째,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기에 러브투어와 관광열차를 운영해서 1만 3천여 명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함께 2만 명 돌파 특별이벤트행사, 러브투어 10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지방공공요금과 서민생활물가에 대한 동향을 정기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상담, 착한가격 업소 관리 지원 등을 통해서 물가불안 요인을 해소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스물한 번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인원 19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 스물 번째,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LP가스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이머록 보급과 연탄쿠폰, 난방카드 등을 보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쪽 스물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신백동 한마음체육관 등 공공기관 14개소와 88개소 단독주택 등에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녹색도시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전통시장 소방안전정비 사업입니다.

화재예방시설 설치와 화재보험가입, 교육 및 순찰강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제천시 관내 1050개 시장 상가 중에서 중앙시장 500개 점포에 화재예방 시설 설치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화재감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번, 18쪽에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25개 점포

중에서 1층은 다 찼는데 2층만 8개가 비어있네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1층에도 1개소가 비어 있습니다.

10개 중 9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9개가요.

예, 그럼 여기 비어있는 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지금 사업단에서 연말까지 25개 점포에 다 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러면 노력해주시고요.

특히 청년몰 조성사업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제천시 일자리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 정책에 맞게 시기는 판단을 하셔서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특히나 우리 제천시에서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원에 정부 측에서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도 광주광역시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조례는. 일자리위원회 조례는요. 그리고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죠, 거기하고 또 여성 여협에서 또 옆에 있는…….

○경제과장 신영철 여성일하기센터.

○김꽃임 위원 예, 여성일하기센터도 있고요. 우리 또 관에 일자리창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 되지 지금 일자리위원회는 시기상조이고 이것은 광역이나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저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면 무엇 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일자리시책을 아주 최고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뭐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래도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거의 시행하는 사업이지 자치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분야까지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이고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광역이나 다른 일반 시에서도 상황판을 만들고 해서 따라하기,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도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을 안다면 이 위원회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제천 소도시에서는요. 이것은 광역하고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그 사업에 대응하고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지 우리 제천시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면 무엇 합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기상조라기보다도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우리 상반기 때 청년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청년 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과장 신영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여러 가지 정책 그런데 저는 지금 시에서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제천 관내에 청장년들을 위한 복지나 아니면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에서 했을 때 우리 지역인재, 했을 때 보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년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아,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제천시만의 정책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책자에는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정우상 팀장입니다.

도로팀 장만동 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 권천숙 팀장입니다.

하천팀에 서창용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8쪽, 1번입니다.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성면 구룡리~청풍 교리 국민연금리조트까지 6.6km, 10m 폭 4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발주를 위해서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소방서~원뜰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2km에 폭은 35m 16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 100필지에서 92필지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은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주변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도로개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육교철거 및 선형개량 400m 21.5m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도이설 및 교량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전 본선구간 차량통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량통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니복합타운~동산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500m 20m 폭으로 45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고사항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 행사장 주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3구간에서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미당 오거리~모산교차로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14페이지, 이마트~강저택지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5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유관기관 협의, 행정절차이행과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700m 15m 폭으로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준공 및 행정절차 등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토중학교~답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350m 15m의 폭으로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했고 하반기에 용역준공 및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접근도로망 개선사업입니다.

총 2구간에 대해서 10.9km로 상반기에 1구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1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독중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송학면 송한리 독중말천으로써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거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백동 세거리 일원으로 2km에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등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는 계속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영서동에 태양상사에서 화산교 거기에 지금 사고 난 것은 잘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잘 협의가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관련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관련자들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다 공사를 끝내고 완료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제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작은 공사할 때에 매뉴얼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가서 여쭙봤을 때 관련된 매뉴얼은 없다 그냥 안전시설 하계끔 되어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래서 주요한 시설공사를 할 때 가설시설을 하는 시설비가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 설비가 반영이 안 돼서 아마 가시설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는 가시설 안전시설 꼭 반영해줘서, 물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가시설을 꼭 안 해도 밤에 볼 수 있는 빛나오는 것 뭐라고 하죠? 야관등?

○건설과장 김한복 경광등.

○김꽃임 위원 경광등 그것하고 펜스만 설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야 하나요? 예산을?

○건설과장 김한복 사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 측에서도 본인들 사고예방차원에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했었으면 참 좋았었을텐데 안 돼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기본매뉴얼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기본적인 매뉴얼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안전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은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 그외 위험시설에 대한 가시설비는 별도로 저희가 봐주게 돼 있어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자연재해가 폭우나 이런 것 폭설 이런 것 왔을 때 이게 인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사 현장도 지나가시다가 전동휠체어로 떨어지신 건데 거기도 누구나 지나가다 발만 헛디뎠어도 엄청 많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깊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동안 방치되고 꼬갈콘만 있었느냐 이거죠. 꼬갈콘이 정식 명칭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한복 라바콘.

○김꽃임 위원 라바콘이요?

○건설과장 김한복 라바콘.

○**김꽃임 위원** 라바콘, 예. 그것만 제가 인근 주민 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4개인가, 3개 정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업체가 직접 하는 원도급급이 먼저 하는 데도 있지만 요새는 하도, 하도 그래서 부실공사도 많아요. 그런데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내에 안전소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매뉴얼에 시방서나 이렇 데에 넣으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원론적으로 완전 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매뉴얼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밤에 지나갈 때 보행이나 이런 것에 위험도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경광등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이렇게요. 특히나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는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가 시설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반이 무너지거나 이래가지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특히나 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사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게 .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관내에도 찾아보시고 없으면 만드셔서, 만드시더라도 저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제천관내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그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주민 분들이나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하면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현장감독,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현장감독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현장감독하고 얘기하다가 싸움이 되어서 담당부서나 이런 데 연락을 하는데 그 민원제기한 분 정보사항이 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누출시키지 마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담당분이 그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담당분이 전화를 해줘야 하는데 다시 현장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업체 측에서.

○**건설과장 김한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안내표지판에 보면 현장감독, 현장소장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그분들 안내 전화번호만 있는데 우리 거기에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그분 핸드폰번호는 그렇고 그냥…… 왜냐하면 우리 민원인이 그 부서가 어디인지 찾다가 한 세 번 전화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저희도 또 헛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건설과인지, 아니면 환경사업소인지 헛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감독하는 지정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꽃임 위원** 그 부서하고 그 팀하고 해서 그분 실명하기는 뭐니까 그냥 담당팀이래서 관내 전화번호 안내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사실 그 안내판에 감독 현장, 소장, 대리인이라든가 다 있고 우리 관련 부서 감독공무원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없어요?

○**김꽃임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김꽃임 위원** 제가 이번에 사고난 현장에 가서도 제가 찍었는데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안내판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건설과장 김한복** 시행부서와 감독공무원…….

○**김꽃임 위원** 특히나…….

○**건설과장 김한복** 연락처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특히나 공사현장에 해머드릴 새벽에 해머드릴 같은 것 막 해서 잠 못자서 이랬을 때 민원이 올 때 그 현장에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하도 받으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의 내용의 100%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과 조율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우리 관이나 이런 데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민원을 또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좀 하반기에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늘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동현육교 처음 사업비가 45억 원이었어요. 지금 45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 때문에 줄었나요? 왜 줄었죠?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42억 원이라고 표기돼서 42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볼 때 지금 도로구간이 400m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400m.

○**홍석용 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다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400m인데 토지 보상도 하지 않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 구조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내려앉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엑스포 전에 끝내려면 굉장히 서둘러야 하는데, 이 42억 원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지금 저희들 계약된 현황을 보면 한 9억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철거비가 한 5억 원 들어가고, 도로공사비가 한 20억 원, 폐기물 처리가 한 2억 7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관급자재가 한 6억 2300만 원, 전기가 한 1억 2800만 원 해서 한 9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42억 원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하는 것이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본선 구간이 개통되어서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토지보상비용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400m 공사를 하는데 4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하여간 나중에 한번 제가 이것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웃음)예,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

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공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건설과도 누차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사실 혼나고 있거든요? 남은 돈으로 보도블록만 교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도로팀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왜 이 도로를 지금 인도를 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거나 또 시에서 특별한 계획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작년에 이쪽에 옆에 했는데 올해 여기하면 똑같은 것을 또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민들 어디를 가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도블록 계속 교체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요해서 하는건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있는 각종 SNS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 건설과에서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는 이유는 주민의 불편사항, 보도블록의 노후 이런 것들을 좀 실어주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SNS가?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아, 여기는 이래서 공사를 하는구나, 주민들이 또 요구사항을, 민원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해오고 있어요. 우리 하천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으면 좀 자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웬만한 소하천정비를 해왔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은 소하천까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 50%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사를.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꾸준히 사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천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여기는 하천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사실 소하천정비사업할 때 저희들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면장들이 요청을 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일부 주민들이 아마 잘 사업 취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을 때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사업설명회할 때 가보면 어떤 때는 진짜 상당수가 반대를 해요,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모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쭙볼게요. 8쪽에 국지도 82호선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1차사업 끝나고 3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3차사업이 구룡리에서부터 연금리조트까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구간을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 전체가 4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성에서부터 연금리조트까지 2차선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2차선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냥 선형만 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2018년도 케이 블카가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인데 가장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이 이 구간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금월봉 구간이 가장 많이 생기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금성까지 4차선이고 그다음부터는 2차선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연금리조트까지가 길이 항상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풍 시내 들어가서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지금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럼 2022년, 20년이 걸려도 사업이 안 끝나요. 매듭이 안 저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을 중장기로 봤을 때 한번 계획을 잡아서 공사할 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는데 이것 선형만 잡아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도 4차선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여기 뭐 2차선 선형만 잡는다고 이 도로가 병목현상이 안 생기냐는 거죠. 여기 과장님 가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부터 연금리조트까지는 추월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그럼 여기에 남제천IC에서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내려서 청풍 쪽으로 갈 때 관광버스 몇 대가 갔을 때 도로가 얼마나 막힐 것인가 미리 한번 교통영향평가도 한번 받아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설계 시작한 것도 2015년부터 설계 시작했는데…….

○김호경 위원 그런데 2015년인데 구간이 이 구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6.6km네요, 구간이.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6.6km이고요.

○김호경 위원 6.6km인데 2015년도, 올해 2017년도 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무슨 설계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건설과장 김한복 설계하는데 벌써 2년 걸렸습니다. 제가 청풍에 있을 때 그때…….

○김호경 위원 글썄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한복 주민설명회 하고 그랬으니깐요.

○김호경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복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 4차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도 492억 원 500억 원 넘어가면 뒤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가장

막히는 구간이 금월봉 구간 그 구간이 커브지면서 가장 막히는 구간인데, 하여튼 평상시에는 막히는 구간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전체를 다 4차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쪽에서도 많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 아무래도 국·도비 가지고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어차피 관리는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지금은 차량이 많아서 차량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화물차라든가, 큰 차가 있을 때는 추월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성에서부터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을 선형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그쪽에 추월선을 또 만들면 되는 것이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추월선을 만들어도 이게 다 짧아서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추월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한 차선에서 시야가 확보가 됐을 때 추월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쉽지가 않다고 이 도로 자체가.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것 지금 아직까지 설계 중이니까 도에 적극적으로 4차선으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던가, 하여튼 그것을 장기적으로 좀 봐야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이것을.

○건설과장 김한복 청풍 다리 놓을 때도 그때도 4차선 도로로 해야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김호경 위원 그때도 그렇게 했어야 했지만 결국 못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결국 못했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4차선 해야 해요. 거기도. 그리고 구 교량 있죠? 청풍대로.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호경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도에서 그냥…… 원래는 도로 교량을 청풍 선형개량 하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혔었어요.

○김호경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복 문화재청과 문화재 협의할 당시에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철거할 때 막대한 지방비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하고, 예산을 못세워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김호경 위원 맞죠. 저기는 안전진단 받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건설과장 김한복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도에서 세워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의원님이 가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호경 위원 글썄요. 그것도 얼른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도와 좀 협의를 하셔서 금성에서부터 연금리조트까지 4차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건설과장 김한복 예,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인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엄희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조형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수 예방복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1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 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지 지원 및 설계공모 완료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 이후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신규 공무원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입니다.

신규 공무원 및 미 이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CPR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대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년간 245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와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관리로써 8월말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열한 번째,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됩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차질 없는 사전 준비로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여섯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상반기 대선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항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면 산발발생에 따른 재난대응훈련 실시하겠습니다, 훈련 준비 및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민원해소 사업은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마무리 중으로 하반기에 착수토록 하여 위험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으로 안전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입니다.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도내 중하위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목표관리제 수립,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지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에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노력해 주셔서 제천에 큰 비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

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충북 학생안전체험관은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정은 금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1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착공은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은 다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거기 자작나무나 아니면 조성해 놓은 것들? 그런 기 시설물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기 시설물은 어떤 어린이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홍석용 위원 화장실도 철거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춘 화장실은 저쪽에…….

○홍석용 위원 산업안전체형?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경제과에서.

그다음에 기존 수목은 최대한 살리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식하는 것이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톱으로 베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산 예산해서 나무도 생명인데 비용이 든다고 해서 다 베어버리지 않도록 꼭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계속 임기 초반부터 계속 건의드리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내버스 기사 분들까지도 교육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신규 공무원들 외에 기존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 끝났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많은 공무원들이 이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누락된 공무원이 있어서 금번에 신규 공무원하고 같이 이수 안한 분들은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라이선스를 다 지급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심폐소생술 라이선스를 따도, 물론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습관적인 것으로 인해서 가능도 하겠지만 이게 아마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이선스 만지 오래된 분들, 상황이 어떤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도 한번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이것을 배워보려고 대회의실 몇 번 올라갔다가 결국은 저는 라이선스를 못 땀습니다. 결국 시간에 쫓겨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마을에 다
니다보면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
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배우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일정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시도 꼭 좀, 개인택시 조합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홍석용 위원** 조합하고 법인회사하고도 해서 의무적으로 안 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도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여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호 경 김 꽃 임 박 은 영 이 성 진
홍 석 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동삼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장	김 태 원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한 만 길
지 역 개 발 과 장	신 건 민
경 제 과 장	신 영 철
건 설 과 장	김 한 복
안 전 총 괄 과 장	박 춘
한 방 바 이 오 과 장	엄 세 진